

다시 교육의 본질로, 교육은 대화다

교육의향

하정호

광주시교육청 공무원



지난 토요일(16일), 올해도 작년처럼 '광주교육 협치한마당'이 열렸다. 학부모와 학생, 여러 단체들이 공연과 발표 대회, 59개의 전시와 체험 부스를 종일도록 엮어내었다. 뱀처럼 꼬리를 길게 늘어뜨린 사람들 사이사이로 부모의 손을 잡은 아이들이 헤집고 다니기 바빴다. '우리가 직접 한다'는 의미의 '우직한 한마당'에서 학생들은 마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친구와 어른들 앞에서 자랑했다. 학부모 동아리들은 알록달록한 천으로, 도예나 라탄 공예, 가죽 공예 등으로 부스를 화려하게 치장하고 꼬마 손님들을 맞았다. 기후위기비상행동실천단들은 쌀뜨물로 비료를 만들고, 천연 주방세제도 만들어 보이며 플라스틱 없는 세상을 꿈꾸었다. 하고 싶은 말들을 붙인 전시와 체험 부스로 사람들이 다가올 때마다 했던 말을 하고 또 해야 했다. 지치고 힘들어도, 그래도 좋았다. 한 해 동안 했던 일들을 내보이며 자신의 무대로 관객을 초대할 수 있어 좋았고, 언젠가는 그들과 같은 무대에 설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협치한마당 이틀 전에는 수능 시험이 있었다. 지난 12년 공교육의 결과를 수험생의 등쪽에 등급과 점수로 찍어내는 날이었다. 단 하루 그 시험을 위해 자신의 소질과 적성도 모른 채, 갈 곳 몰라 하면서 삶을 유예해 왔던 학생들이 잠시 쉼에서 벗어난 날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제는 그 시험을 '순응 시험'이라고도 부른다. 근대산업사회의 노동자들을 훈육할 때나 적합했던 표준화교육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것을, 그런 순응은 오히려 살아갈 힘조차 빼앗고 만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그래도 바다로 뛰어드는 나그네취처럼 올해도 5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수능 시험의 대열로 뛰어 들었다.

나그네취들은 개체수가 늘어 먹고살기가 힘들어지면 사방으로 흩어져 새로운 서식지를 찾는다. 물을 만나면 헤엄을 쳐서라도 건너려 하는데 바다로 뛰어들면 불운한 쥐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런 나그네취가 아니다.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먹고살 만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다. 삶과 노동의 질서, 복지와 과세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서로를 옥죄는 순응 시험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마을교육공동체는 아이들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열고, 삶과 노동의 질서를 바꾸는 먼 길의 시작점이다. 우직한 한마당은 학생들이 스스로 우리 교육을 바꾸어 그 문을 열어가는 열

쇠이다. 비상행동 실천을 통해 학생들은 어른들도 함께 그 문을 열고 손을 내민다. 동아리로 정을 엮어가는 학부모들도 등갓길에서 맞이하던 아이들이 순응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물론 이 모든 활동들의 한가운데 교사들이 있다. 교사들은 누구보다 그런 세상을 바라고 또 바라겠지만, 무자비한 사회의 또 다른 요구에 힘들어 한다. 뷔리당의 당나귀처럼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중으로 구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이중구속을 끊어내고 학교가 지역사회 변화의 거점이 될 수 있을까? 기후위기를 막아내는 자원순환의 거점이 되고, 인구소멸에 대응하고 마을을 돌보고 가꾸는 배움과 돌봄의 공간이 될 수 있을까? 돌봄과 교육을 구별짓고 돌봄은 교사의 일이 아니라고 하기보다, 자신과 이웃을 돌보는 것부터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교육임을 다시 말할 수 있을까?

OECD가 말하는 것처럼 학생들이 변혁적 역량을 갖춘 행위자가 되게 하려면 학교가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한다, 갈등과 딜레마를 조정하며 책임감을 갖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갈 수 있는 학습자침반을 학생들에게 쥐어주어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대화가 필요하다.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른 세상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먼저 묻고 답해야 한다. 말로, 글로, 몸으로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그것이 교육이다.

社說

국립의대 유치 '동서 갈등' 봉합 남았다

통합으로 걸림돌 헤쳐가길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가 대학 통합에 합의했다. 30년 숙원인 국립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이 가시화되면서 전남도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목포대와 순천대 총장은 전남도의 의대 신설 공모 신청 1차 마감일인 지난 15일 전격 대학 통합을 결정했다.

전남도내 국립의대 유치는 동서갈등이 첨예했다. 전남도는 전남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조건부) 추진' 약속과 관련 부처의 '추진' 약속에 따라 의대 유치에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목포대와 순천대는 단일 의대를 놓고 경쟁을 넘어 지역갈등으로 확대재생산됐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대통령이 약속한 만큼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는 취지를 부각시켰지만, 행정의 조급성과 오락가락 행정도 논란이 됐다. 도가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놓고 통합 의대 카드를 꺼낸 지 5개월 만에 공모를 통한 단일 의대 유치로 급전회해 혼선을 빚기도 했

다. 이 과정에서도 용역사를 통해 공모 절차가 진행됐지만 의과대학 신설 및 병원 건립 재원 마련, 연구시설 및 교수진 확충 등 산적한 과제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기도 했다. 이런 대립각 속에 목포대와 순천대가 극적으로 통합 합의를 이끌어 낸 건 역사에 남을 일이다. 그렇다고 국립의대 유치를 위한 걸림돌이 해소된 건 아니다. 지역 갈등은 여전하다. 의대 설립과 병원설립, 대학 통합 시 유·불리를 놓고 갈등은 불가피하다. 목포대와 순천대간 통합 합의는 국립의대 유치를 위한 마중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남은 건 전남 동·서지역 정치권의 갈등해소다. 의대 유치를 놓고 양 지역 정치권의 표 계산은 사라져야 한다. 이런 양 대학에 이어 정치권의 합의도 절실하다. 양 대학도 마찬가지다. 통합을 위한 무수한 걸림돌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 대학은 통합 정신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걸림돌을 헤쳐나가길 바란다. 도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적 이득만 따져서는 안 될 일이다.

광주형 일자리 대타협의 가치 살려내야

'원인 모델' 초심 잊으면 안돼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조 설립과 관련된 강기정 광주시장과 GGM 노조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노조 결성이 유감'이라는 강 시장과 이 발언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노조 측 입장이 대립하고 있어서다. 어렵게 광주에 자리를 튼 GGM의 길길이 먼 상황에서 안타까운 일이다.

GGM은 지난 문재인 정부시절인 2019년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국내에서 23년만에 설립된 완성차 공장이다. 설립초기부터 노사 상생이라는 광주형 일자리를 적용한 첫 모델로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국내 제조업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노동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 또한 적정한 수익을 얻는 '순순환 경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기업과 노조, 시민과 광주시가 머리를 맞대 만든 결실이라는 의미도 크다. 비록 연봉은 낮을 수 있지만, 지역의 고용을 늘리고 지역 경제도 살리는 '원인 모델'의 시작을 베푼 마음으로 지켜봤던 출범 당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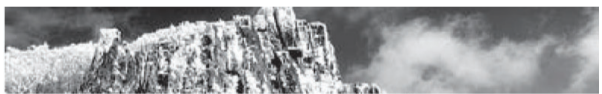
어제 일처럼 눈에 선하다. 노조 결성과 활동은 헌법이 보장한다는 노조 측 주장은 백 번 맞는 말이다. 문제는 갓 출범한 GGM의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미래다. 당장 GGM은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살아남아야 한다. 자신들이 만든 상품을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판매하지 못하는 위탁생산의 한계에서 지금 같은 갈등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기차와 내연기관을 혼류 생산하는 초유의 모델을 정착시키는 것도 노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합해야 이룰 수 있는 어려운 과제다. 광주형 일자리가 수많은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로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은 임금이나 처우보다 상생과 지역 살리기에 더 큰 가치를 뒀기 때문이다. 지금 노조가 가야할 길은 노·사·민·정의 대타협을 이뤘던 상생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다. 광주시도 제 1주주로서 지역사회와 약속했던 사회적 비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광주형 일자리는 시민과 지역경제, 노동계, 자치단체가 서로가 양보하면서 만들어낸 광주의 미래를 명심해야 한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16일(현지시각) 오스트리아 빈 시청 앞에서 전통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려 한 남성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사진 찍고 있다. 이곳은 빈에서 가장 인기 있는 크리스마스 마켓 중 한 곳으로 다양한 장식품과 음식, 음료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AP/뉴시스

서석대



미국 경제학자인 조지프 슈페터는 1942년 자신의 저서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통해 '고전적 민주주의'와 자신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를 분리했다. 그는 자본주의와 함께 발전한 '고전적 민주주의'의 본질은 공동의 의지를 통해 공동의 선으로 나아가는 과정 자체라고 봤다. 그러나 그는 이 과정에서 고전적 민주주의의 한계가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모든 사람의 의지가 '공동의 의지'로 반영됨에 따라 절대다수의 주장이 무조건적으로 옳다고 받아들여지는 등 절대적인 진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슈페터는 이러한 고전적 민주주의의 과정에서 정치인들이 이를 이용해 시민들의 마음을 현혹하는데만 치중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고전 민주주의란 민중이 지배하는 정치체제가 아닌, 민중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치가들의 경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슈페터가 주창한 민주주의는 무엇일까. 그는 자신의 민주주의를 '정치적 지도력을 장악하기 위한 자유 경쟁'이라고 명명했다. 그에게 민주주의란 정치적인 결정에 도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만 존재한다고 규정했

다. 광주 민·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취재하며 슈페터가 지적한 '고전 민주주의'의 한계가 생각난 이유는 무엇일까. 민·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10명의 전남 국회의원들에게 몇 번이고 연락을 취했으나, 대부분의 의원들은 "민감한 현안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입장 표명을 피했으며 심지어 동부권 의원들의 경우 "서부권에 해당되는 일이지 동부권 의원들이 답을 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태도에 국민의힘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은 "정부에서 민·군공항 이전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것에 얽매어 관련 논의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과연 의원들이 지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찬반을 떠나 지역민들의 한 표를 통해 당선된 자리인 만큼 지역민들의 의견을 피력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민중의 지지를 얻으려는 경쟁 과정에서의 정치가 아닌, 민중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할 때다. 오지현 취재1부 기자

민중을 위한 정치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51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